

스페인어에서 두 가지 국면침투불가조건 위반 사례에 대한 최소주의적 분석*

심 상 완
단국대학교

심상완(2017), 「스페인어에서 두 가지 국면침투불가조건 위반 사례에 대한 최소주의적 분석」, *이베로아메리카연구*, 28(1), 87-115.

초 록 본 연구에서는 스페인어의 두 가지 원거리 이동 사례에 대한 최소주의적 분석을 제시한다. 국면침투불가조건(Phase Impenetrability Condition)은 국면의 가장자리를 거치는 연쇄-순환식 이동을 강요한다. 즉, 국면(CP, vP) 밖으로의 이동은 반드시 국면의 가장자리(CP의 지정어, vP의 지정어)를 거쳐야만 한다. 그런데 스페인어에는 CP 밖으로 이동하는 요소가 CP의 지정어를 거치지 않는 두 가지 사례가 존재한다. 하나는 Fernández-Salguero(2008; 2011a; b)가 제시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Torrego(1984)가 제시한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국면침투불가조건을 어기는 것처럼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동이 허용되는 이유를 설명하는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국면확대(phase extension)는 통사적 이동뿐만 아니라 의미적 선택을 통해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Kim Sun-Woong(2009)의 주장을 수용한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V가 CP를 선택하면 CP에서 VP로 국면확대가 발생하며 그 결과 국면 CP가 국면성을 상실하게 된다. 본고에서는 의미적 선택에 의한 국면확대는 원거리 이동을 하는 요소가 국면침투불가조건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CP의 지정어를 건너뛸 수 있도록 해준다고 주장하고자 한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본고에서 제시한 두 가지 사례에서 CP의 지정어를 건너뛰는 원거리 이동이 가능케 된다.

핵심어 원거리 이동, 국면, 국면침투불가조건, 의미적 선택, 국면확대

* 본 연구는 2016년 한국스페인어문학회 겨울 학술대회(경희대)에서 발표된 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초안에 대해 좋은 의견을 주신 익명의 논평자 분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있을 수 있는 오류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저자에게 있음을 미리 밝힌다.

I. 서론

본 연구의 목표는 최소주의의 이론적 틀(Chomsky 2000; 2001) 내에서 스페인어의 원거리 이동 현상(long distance movement)에 대한 분석을 제시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국면침투불가조건(Phase Impenetrability Condition: PIC)(Chomsky 2000)을 위반하는 것처럼 보이는 두 가지 사례를 소개하고 PIC의 틀 내에서 이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지를 논의해 보고자 한다. 본고에서 다루는 두 가지 예는 다음과 같다.

- (1) a. *Mis padres parece que son muy listos.*
 b. *Tú parece que amas a Romeo.*
 c. *Los vecinos parece que se han ido, porque nunca los veo.*
 (a) from (Fernández-Salgueiro 2011b, 125), (b), (c) from (Holmlander 2004)
- (2) a. *¿Con quién, creías tú que quería Juan que María hablara t_i?*
 b. *¿Qué libro, dice que Ana le había regalado t_i?*
 c. *¿En qué vía, dijo Juan que anunció el altavoz que el tren se estacionaría t_i?*
 (Torrego 1984, 113)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PIC 위반처럼 보이는 원거리 A-이동 사례를 제시한다. 3장에서는 PIC 위반처럼 보이는 원거리 A'-이동 사례를 제시한다. 4장에서는 국면확대에 입각한 분석을 제시한다. 5장에서는 본고의 결론이 제시된다.

II. PIC 위반처럼 보이는 A-이동

아래의 예를 살펴보자. Holmlander(2004, 11)에 따르면 영어와 달리 구어체 스페인어에서는 (3)과 같은 예가 흔하다고 한다. ((3)=(1))¹⁾

1) 필자도 이와 같은 유형의 예를 신문기사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 (3) a. *Mis padres* parece que son muy listos.
 b. *Tú* parece que amas a Romeo.
 c. *Los vecinos* parece que se han ido, porque nunca los veo.
 (a) from (Fernández-Salgueiro 2011b, 125), (b), (c) from (Holmlander 2004)
- (4) **Juliet*; it seems [_{CP} that [_{e_i} loves Romeo]]

(3)과 같은 예문의 특징은 문두에 출현하는 DP가 주절 동사(*parecer*)와 일치를 하지 않고 내포절 동사와 일치를 하며 내포절의 주어로 해석된다는 점이다. 이런 점 때문에 이들 예문은 DP가 내포절 주어 위치에서부터 주절의 맨 앞으로 이동한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Olarrea(1998, 55)는 주절 맨 앞에 출현하는 DP는 주절동사(*parecer*)와 수의 일치를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DP가 주절동사의 주어가 아닌 것은 맞지만 내포절에서부터 이동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는 문두의 DP가 내포절 주어로 해석되고 또한 주절 동사가 아닌 내포절 동사와 수의 일치를 한다는 사실 때문에 DP가 내포절에서부터 주절로 이동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내포절의 주어 위치는 시제동사에 의해 주격이 부여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위치에서 DP는 격 여과(Case filter)를 만족시킬 수 있고 따라서 더 이상 이동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Olarrea는 문두의 DP는 내포절에서부터 이동해 온 것이 아니라 표면 위치에 기저 생성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즉, 이들 예문은 좌측 전이 구조(left dislocation)를 지닌다고 주장한다. 아래에서 보듯이 문두의 DP는 표면 위치에서 IP에 부착되고, 주절의 주어 위치에는 공 허사(null expletive)가, 그리고 내포절 주어 위치에는 공 지시적 대명사(empty referential pronoun)

(i) a. **Los primeros cristianos** no parece que **celebrasen** su cumpleaños.
 b. **El régimen de Kim** no parece que **vaya** a dejar el programa de armas nucleares.
<http://opusdei.org/ni/es-ni/article/3-por-que-se-celebra-el-nacimiento-de-jesus-el-25-de-diciembre/>
http://elpais.com/elpais/2013/07/17/opinion/1374082096_981350.html

pro가 출현하는 구조를 지니며 이런 구조 때문에 문두의 DP는 내포절 동사와 일치하고 주절동사는 항상 3인칭 단수로 나타난다고 설명한다.

(5) $[_{IP} \text{mis padres; } [_{IP} [e]_{\text{null exp}} \text{ parece que } pro; \text{ son muy listos}]$

한편, Olarrea의 주장과는 달리 Fernández-Salgueiro(2008; 2011a; b)는 비록 문두의 DP와 주절동사 사이에는 일치가 나타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DP는 내포절 주어 위치에서 주절의 주어 위치(SpecTP)로 A-이동을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²⁾³⁾ 그는 이러한 이동을 ‘추가-인상(further-raising)’이라고 부른다.

(6) $[_{TP} DP T \dots [_{CP} [_{TP} \overline{DP} T [_{tP} \overline{DP} \dots]]]]$
 ↑-----| |-----|
 further-raising
 (A-movement)

Fernández-Salgueiro는 (3)에서 문두의 DP가 내포절에서부터 주절로 이동함으로써 도출되었다는 근거로서 아래 (7)-(10)의 (b) 예문들이 비문이라는 사

2) 그에 따르면 스페인어뿐만 아니라 까탈란, 갈리시아, 이탈리아어, 유럽 포르투갈어, 바스크어 등에서도 내포절 주어가 주절 주어 위치로 A-이동하는 것을 허용한다.

(i) Algúns nenos parece que están listos.(Galician)
 ‘Algunos niños parece que están locos’

3) Fernández-Salgueiro(2008)는 DP가 내포절 주어 위치에서 주절로 이동이 어떻게 가능한 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DP가 내포절의 완전한 시제(\emptyset -complete T)와의 AGREE를 통해 T의 비해석 자질(\emptyset -features)과 EPP 자질을 값매김(value)/제거하지만 자신이 지닌 격 자질 삭제는 주절 T의 EPP 자질 제거를 위해 주절로 추가-인상된 이후로 늦춰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in languages that allow further-raising, the \emptyset -features on the functional head get valued but Case-F valuation can be delayed. If this assumption is on the right track, it will explain why a subject DP can undergo a second instance of A-movement without violating Last Resort [...]”). 그 이유는 이동이 가능하려면 DP의 격 자질이 활성화(active) 되어 있어야 하는데 만약 내포절 T와 AGREE를 통해 격 자질이 값매김/제거되면 격자질이 비활성화 되어버려 더 이상 이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는 주절 T의 EPP 자질 제거를 위해 추가-인상되는 DP의 격 자질은 내포절의 T와 AGREE 시점에서 값매김/제거되지 않는다고 본다. 다시 말해 AGREE를 구성하는 두 하위 작용인 일치(내포절 T와의 일치)와 격 점검이 도출 과정에서 서로 다른 지점에서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이것이 영주어 언어의 특징 중 하나라고 주장한다.

실을 제시한다.

- (7) a. Parece que los cuadros que mis padres compraron son muy bonitos.
 b. **Mis padres* parece que los cuadros que compraron son muy bonitos.
 (Relative clause island effect)
- (8) a. Parece que el hecho de que Juan y María se divorciaron sorprendió a todo el mundo.
 b. **Juan y María* parece que el hecho de que se divorciaron sorprendió a todo el mundo.
 (Complex NP island effect)
- (9) a. Parece que Eva se pregunta si hizo Juan la comida.
 b. **Juan* parece que Eva se pregunta si hizo la comida.
 (wh-island effect)
- (10) a. Le parece que Juan compró un libro.
 b. **Juan* le parece que compró un libro.
 (Fernández-Salgueiro 2004, 60; 2011b, 126)

잘 알려져 있다시피 어떤 섬(island)을 뛰어 넘거나 스페인어에서 경험자(experiencer) 클리틱을 뛰어넘는 것은 허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감안할 때 위에서 (b) 예문들이 비문이라는 사실은 (3)과 같은 예문이 DP의 이동을 통해 도출된 것임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것이다.⁴⁾

그리고 Fernández-Salgueiro는 이러한 이동이 A-이동이라는 증거로 몇 가지 사례를 제시한다. 그 중 두 가지만을 소개해보자. 첫째, 관용적 표현(idiomatic expression)을 구성하는 요소들은 원칙적으로 서로 함께 출현해야 하지만 표면상 서로 떨어져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관용적 해석이 유지되는 사례가 존재하는데 통사론에서는 이를 A-이동의 증거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⁵⁾

4) Torrego(1996; 2002)에서 논의한 것처럼 스페인어의 경험자 클리틱은 내포절 주어가 주절로 이동하는 것을 차단하지만 이탈리아어나 불어에서는 경험자구(a + NP)는 이동을 차단하지만 경험자 클리틱은 이동을 차단하지 않는다.

아래 (11b)에서 보듯이 ‘mala hierba’는 관용적 표현을 구성하는 나머지 어휘들과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용적 해석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사실은 ‘mala hierba’가 내포절에서 A-이동한 증거라고 주장한다.

- (11) a. Mala hierba nunca muere.
 ‘The devil looks after himself’.
 b. *Mala hierba* parece que nunca muere.

둘째, (12a)에서 보편양화사(universal quantifier) ‘todo deportista’는 존재양화사(existential quantifier) ‘alguna lesión’에 대해서 작용역(scope)을 가질 수 있다. 그런데 존재양화사가 주절에 출현하는 (12b)에서도 보편양화사는 여전히 존재양화사에 대해 작용역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은 A-이동의 증거라는 것이다.

- (12) a. Alguna lesión afecta siempre a todo deportista.
 (alguna > todo, todo > alguna)
 b. Alguna *lesión* parece que afecta siempre a todo deportista.
 (alguna > todo, todo > alguna)
 (Fernández-Salgueiro 2011b, 127)

본고에서는 Fernández-Salgueiro가 주장하는 A-이동을 통한 도출 주장을

(i) Juan_i (*me) parece [_i leer mucho].
 (Gallego 2006a, 53)

(ii) a. Gianni *gli* sembra essere stanco.
 ‘Gianni seems to him to be tired’.
 b. Ce conducteur me semble être fatiguée.
 ‘This driver seems to me to be tired’.
 (Torrego 2002, 2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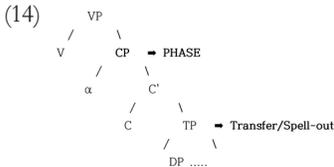
5) 관용적 표현 의미의 유지 여부가 A-이동의 근거로 사용되는 이유는 아래에서 보듯이 전형적인 A-위치로의 이동이 일어나더라도 관용적 표현(the shit hit the fan, the cat is out of the bag)의 의미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i) a. They believe *the shit* to have *hit the fan* yesterday(raising to object).
 b. *The cat* seemed to *be out of the bag*(raising to SpecTP, raising construction).
 c. *The cat* was let out of *the bag*(raising to SpecTP, passive construction).

수용하기로 한다. 그런데 그의 주장처럼 (3)에서 문두에 출현하는 DP가 A-이동을 통해 주절의 주어 위치로 이동한 것이라면 이러한 도출은 PIC 위반에 직면하는 듯하다.

- (13) 국면침투불가조건(Phase Impenetrability Condition)(Chomsky 2000, 108)
 In phase α with head H, the domain of H is not accessible to operations outside α ; only H and its edge are accessible to such operations.

PIC는 국면⁶⁾밖으로 나가는 모든 이동에 대해 국면 핵의 가장자리(edge: 핵과 지정어)에서부터 이뤄지도록 요구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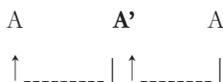


(14)에서 보듯이 V가 병합되어 국면 CP가 완성되자마자 국면 핵 C의 보어(complement)인 TP는 접합면(Interface)으로 전이(Transfer)/문자화(Spell-out)되어 버린다. 따라서 접합면으로 전이되는 TP의 내부에 있는 요소들은 더 이상 이동(Move), 병합(Merge), 일치(Agree)와 같은 통사적 과정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TP 내부에 있는 요소가 상위절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TP가 접합면으로 전이되기 전에 국면의 가장자리(SpecCP)로 이동해 있어야만 한다. 가령, Fernández-Salgueiro의 주장처럼 (3)에서 문두에 출현하는 DP가 내포절의 SpecTP에서 주절의 SpecTP로 이동했다면 PIC 때문에 DP는 국면 CP의 가장자리인 SpecCP를 반드시 거쳐서 이동해야만 한다. 하지만 (3)에서 DP가 SpecCP를 거쳐서 이동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내포절 SpecTP(A-위치)에서 시작하여 SpecCP(A'-위치)를 거쳐서 주절의 SpecTP(A-위치)로 이동

6) Chomsky(2000, 106)는 국면이란 명제(proposition)에 가장 가까운 통사적 대응체로서 모든 의미역이 부여된 타동사구 *vP* 및 시제와 문장유형(force)을 지닌 완전한 절, 즉 CP를 국면으로 본다.

하는 것은 부적절 이동(improper movement: A-A'-A)이기 때문이다.

(15) [TP DP T ... [CP ~~DP~~-C [TP ~~DP~~ T ...]]] (improper movement)



그렇다면 (3)에서 문두에 출현하는 DP는 SpecCP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주절로 이동한 것으로 봐야하는데 이는 PIC 위반이다.⁷⁾

(16) [TP DP T ... [CP __ C [TP ~~DP~~ T ...]]] (PIC violation)



따라서 Fernández-Salgueiro의 A-이동을 통한 도출이 수용되기 위해서는 PIC 위반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야만 할 듯하다.

7) 로멘스 언어(스페인어, 불어, 이탈리아어)는 지각동사, 사역동사가 원형절 뿐만 아니라 시제절을 보어로 취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시제 보어절의 주어가 주절의 목적어 위치에 출현할 수도 있다(cf. Suñer 1978; 1982).

- (i) a. Vi que Juan comía la naranja.
- b. Vi a Juan que comía la naranja.
- (ii) a. Dejé que Pedro saliera.
- b. Dejé a Pedro que saliera.

(a)와 (b)의 의미는 사실상 동일하기 때문에 (b)는 명사구가 내포절의 주어 위치에서 주절의 목적어 위치로 이동하여 도출된 것처럼 보인다. 만약 그렇다면 이 역시 A-위치에서 A'-위치로의 이동이므로 내포절 밖으로 이동할 때 A'-위치인 SpecCP를 들러서 이동할 수 없고 따라서 PIC 위반에 직면하게 된다. 하지만 이 구문은 (3)과 달리 이동을 통해 도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3)에서는 주절동사가 인상동사(raising verb)여서 DP가 내포절에서 주절로의 이동한다고 해도 의미역 기준을 어기지 않지만 (ib), (iib)의 경우 DP가 내포절에서 주절로 이동했다고 한다면 이는 의미역 기준(θ-criterion)을 위반하기 때문이다. (ib), (iib)가 이동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또 다른 근거는 Suñer(1984)를 참조하기 바란다. 한편, (ib), (iib) 구문은 관계절 구조(DP-CP)와 유사하다는 점에서 유사 관계구문(pseudo relative)이라 부르기도 한다. 이 유사 관계 구문의 구조에 대한 논의는 Suñer(1982; 1984), Cinque(1995)를 참조하기 바란다.

III. PIC 위반처럼 보이는 A'-이동

1. 연쇄 순환 방식 이동에 대한 범언어적 증거

그동안 하나 이상의 절(CP) 경계를 넘어서는 원거리 의문사 이동(long-distance wh-movement)은 출발 지점에서 목표 지점으로 단 한번에(in one fell swoop)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연쇄 순환적 방식으로(successive cyclically) 이루어진다고 널리 가정되어 왔다. 실제로 연쇄 순환적 이동을 보여주는 통사적, 형태적, 음운적, 형태적, 형태-통사적 증거들이 여러 언어에서 나타난다.지면 관계상 두 가지만을 소개해 보기로 하자.⁸⁾

첫째, 아래에서 보듯이 주절로 이동하는 의문사와 동일한 음성적 복사(wh-copy)가 중간의 SpecCP에 나타나는 현상은 의문사가 연쇄 이동 방식으로 이동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증거다.

- (17) a. **Wen** glaubst Du, **wen** sie getroffen hat? (German)
 who think you who she met has
 'Who do you think she has met?'
- b. **Waarvoor** dink julie **waarvoor** werk ons? (Africans)
 wherefore think you wherefore work we
 'What do you think we are working for?'
- c. **Kas** oDemiri mislenola **kas** iArifa dikhla? (Romani)
 whom Demir think whom Arifa saw
 (Felser 2004, 54)

둘째, West Ulster 지역 영어에서 양화사 all은 의문사와 결부되어 나타날 수도 있고 떨어져 나타날 수도 있다.

- (18) a. **What all** did you get for Christmas?
- b. **What** did you get **all** for Christmas?

8) 연쇄 순환 이동을 보여주는 더 많은 증거들에 대해서는 Citko(2014, 71-77), Boeckx(2008, 11-28), Adger(2003, 377-384) 등을 참조하기 바란다.

(McCloskey 2000, 58)

아래의 예에서 보듯이 의문사가 원거리 이동을 할 때 양화사는 의문사 이동이 시작되는 최초 위치에 좌초(stranded)되어 있을 수도 있고,中间的 SpecCP에 좌초되어 있을 수도 있고, 의문사와 함께 주절까지 이동할 수도 있다.

- (19) a. *What* did he say (that) he wanted **all**?
 b. *What* did he say **all** (that) he wanted?
 c. *What all* did he say (that) he wanted?

(McCloskey 2000, 61)

McCloskey(2000)는 좌초된 양화사의 위치는 이동이 이 위치에서 시작되었거나 혹은 이동이 이 위치를 거쳐서 일어났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19b)에서 中间的 SpecCP에 양화사가 좌초되어 있다는 사실은 의문사의 이동이 이 위치를 거쳤음을 의미한다.

2. 스페인어의 원거리 의문사 이동

한편, Torrego(1984)에서 다뤄진 스페인어의 원거리 의문사 이동 현상도 의문사가 연쇄 순환 방식으로 이동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로 자주 언급된다. 아래에서 보듯이 (논항) 의문사의 이동이 없는 의문문에서는 주어-동사(구)의 도치가 의무사항이 아니다.

- (20) a. ¿*Insu* lo quiere?
 b. ¿Lo quiere *Insu*?

그러나 논항 의문사가 문두(SpecCP)로 이동하면 도치는 의무적이다.

- (21) a. ¿Qué compró Juan?
 b. *¿Qué Juan compró?

따라서 다음과 같이 일반화를 해볼 수 있다.

- (22) 스페인어에서 의문사가 SpecCP에 나타날 경우 주어-동사의 도치는 의무적이고, 의문사가 SpecCP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도치가 의무사항이 아니다.

이번에는 의문사가 절의 경계를 하나 이상 넘어서는 원거리 이동의 예를 살펴보자. 아래 (23a)와 (23b)의 대조에서 보듯이 의문사의 이동 과정에 포함된 모든 절 내부에서 주어와 동사 간의 도치는 의무적이다.

- (23) a. *Juan pensaba [que Pedro le había dicho [que la revista había publicado ya el artículo]]*
 b. *¿Qué pensaba Juan [que le había dicho Pedro [que había publicado ya la revista]]?*
 c. **¿Qué pensaba Juan [que Pedro le había dicho [que la revista había publicado ya]]?*

의문사가 주절로 이동 과정에 포함된 모든 절 내부에 주어-동사 도치가 발생한다는 사실에 대해 Torrego(1984)는 이는 의문사가 단번에 주절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동 과정에 있는 모든 절의 지정어 즉, SpecCP를 거쳐서 이동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원거리 의문사 이동은 왜 연쇄 순환적으로 이뤄지는 것일까? 최소주의 이전의 이론적 테두리에서는 그 이유를 하위인접조건(Subjacency Condition)(Chomsky 1973) 때문으로 설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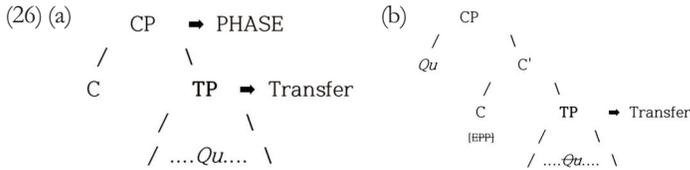
- (24) No rule can involve X and Y if both α and β are cyclic nodes.
 X [α [β Y]] X

하위인접조건의 정의에서 ‘cyclic node’란 한계절점(bounding node)을 가리키는데 Chomsky(1973)에 따르면 한계절점은 DP와 IP이다. 하위인접조건의 핵심은 이동이 일어날 때마다 두 개의 한계절점을 한꺼번에 뛰어 넘는 것은 금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래에서 보듯이 (25a)의 경우는 의문사가 세 번의 연

쇄 순환 이동을 하는데 이때 각각의 이동은 한 개의 한계절점(IP)만을 뛰어 넘으므로 하위인접조건을 어기지 않아 정문이 되지만 (25b)는 의문사의 이동이 최하위절에서 주절로 단 번에 이뤄지기 때문에 한계절점을 한꺼번에 세 개나 건너뛰므로 인해 하위인접조건을 위반하여 비문이 된다.

- (25) a. [_{CP} *Qué* [_{IP} [_{CP} *t* [_{IP} [_{CP} *t* [_{IP} *t*]]]]]] (= (23b))
 ↑-----| ↑-----| ↑-----|
 b. [_{CP} *Qué* [_{IP} [_{CP} *t* [_{IP} [_{CP} *t* [_{IP} *t*]]]]]] (= (23c))
 ↑-----|

한편, 최소주의에서는 이러한 연쇄 순환 이동의 이유를 PIC 때문인 것으로 설명한다. 아래 (26a)에서 보듯이 국면 CP가 완성되면 국면의 보어인 TP는 접합면으로 즉시 전이되어 버리므로 TP 내부에 남아있는 의문사는 더 이상 이동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의문사가 계속 이동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26b)에서 처럼 TP가 접합면으로 전이되기 전에 국면 CP의 지정어로 미리 이동해 있어야만 한다.⁹⁾ 원거리 이동을 하는 의문사가 SpecCP를 거쳐서 이동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지금까지 의문사가 내포절에서 주절로 원거리 이동을 할 때 한 번에 이동하

9) 국면 핵의 가장자리(SpecCP, SpecP)로 의문사의 이동을 가능케 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 Chomsky(2000, 109)는 국면 핵에는 확대투사자리로 자질(EPP feature)이 부여될 수 있어서 이 자질을 점검하기 위해 국면의 가장자리로 의문사가 이동한다고 본다. Chomsky(2008)에서는 이러한 EPP 자질을 SpecTP로 A-이동을 유인하는 EPP 자질과 구분하기 위해 가장자리 자질(Edge feature)이라 부른다. 이처럼 최소주의에서는 의문사가 원거리 이동을 할 때 연쇄 순환 방식으로 이동하는 이유를 PIC와 국면 핵에 부여된 EPP 자질/Edge 자질의 조합을 통해 설명한다.

는 것이 아니라 중간의 SpecCP를 거치는 연쇄 순환 방식으로 이동하며 최소주의 이론에서는 이것을 PIC로 설명한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PIC를 위반하는 것처럼 보이는 원거리 의문사 이동이 존재한다. 아래의 예에서 보듯이 의문사의 원거리 이동이 맨 처음 시작된 절의 내부에서는 주어-동사의 도치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

- (27) a. ¿Con quiéni creías *tú* que quería Juan que **María hablara** t_i ?
 b. ¿Qué libroi dice que **Ana le había regalado** t_i ?
 c. ¿En qué *vía*, dijo Juan que anunció el altavoz que **el tren se estacionaría** t_i ?
 (Torrego 1984, 113)

주어-동사간의 도치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오직 최하위절에서만 가능하다. 아래에서 보듯이 최하위절과 중간절 모두에서 도치가 일어나지 않거나((28a), (29a)), 최하위절에서는 도치가 일어나는데 중간절에서는 도치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28b), (29b)).

- (28) a. *** ¿Con quiéni creías *tú* [que Juan quería [que María hablara t_i]]
 b. ** ¿Con quiéni creías *tú* [que Juan quería [que hablara María t_i]]?
 (29) a. *** ¿En qué *vía* dijo Juan [que *el altavoz* anunció [que el tren se estacionaría t_i]]?
 b. ** ¿En qué *vía* dijo Juan [que anunció *el altavoz* [que se estacionaría *el tren* t_i]]?
 (Torrego 1984, 113)

앞서 (23b)에서 보았듯이 이동의 과정에 있는 모든 절의 내부에 나타나는 주어-동사의 도치 현상은 의문사가 중간의 SpecCP를 모두 들러서 이동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경험적 증거로 사용되었음을 기억해보자. 그렇다면 (27a), (27b), (27c)에서 최하위절 내부에 주어-동사의 도치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아래에서 보듯이 의문사가 최하위절의 SpecCP를 들르지 않고 곧바로 중간절의 SpecCP로 이동했음을 의미한다.((30)은 (27a)에 대한 표시임. 각 절마다 SpecCP로 이동하기 전에 SpecVP로 이동하는 것에 대한 표시는 편의상 생략하기로 한다)

(30) [CP₃ ¿Con quién, creías tú [CP₂ t_i que quería Juan [CP₁ que **María hablara** t_i]]]?
 ↑-----| ↑-----|
 PIC viol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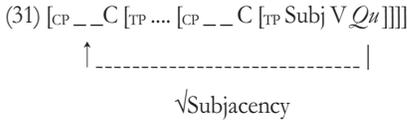
PIC에 따르면 국면 밖으로의 이동은 반드시 국면의 가장자리에서부터만 가능하다. 따라서 최하위 국면인 CP₁의 지정어를 거치지 않은 (30)에서의 이동은 PIC 위반이다.

IV. 국면확대에 입각한 분석

2장과 3장에서 소개한 두 가지 PIC 위반 사례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한 가지 설명 방법은 이들 사례를 근거로 PIC는 국면 밖으로의 모든 이동 현상을 다 설명하기에는 완전하지 못하며 따라서 수정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일 것이다. 또 다른 방법은 이들 예문이 PIC를 위반하는 것처럼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들 예문의 문법성을 PIC의 틀 내에서 설명하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는 것이다.

Torrego(1984)는 (27a), (27b), (27c)에서 의문사가 최하위절의 SpecCP를 들르지 않고 이동하는 것이 하위인접조건을 위반하는 것처럼 보이는 문제와 관련하여 한계절점의 매개변인 설정을 통해 하위인접조건의 틀 내에서 이동의 합법성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즉, 이탈리아어는 한계절점이 IP가 아니라 CP라는 Rizzi(1982)의 주장을 따라 스페인어의 한계절점도 IP가 아니라 CP이고 따라서 최하위절 SpecCP를 들르지 않고 상위절의 SpecCP로 이동하더라도 이는 한 개의 한계절점(CP)만을 뛰어넘은 것이므로 하위인접조건을 위반이 아니라고 설명한다.¹⁰⁾

10) Torrego(1984)가 (27)의 예를 제시한 이유는 한계절점(bounding node)과 관련한 언어 간의 매개변인적 차이가 존재한다는 Rizzi(1982)의 주장이 타당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Rizzi(1982)는 이탈리아어에서 간접 의문문 밖으로의 의문사 이동이 가능하데 그 이유가 한계절점이 IP(S)인 영어와 달리 이탈리아어의 한계절점이 CP



본고에서도 PIC를 위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PIC의 틀 내에서 이러한 이동의 합법성을 설명하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보고 그 방법을 찾아보고자 한다.

1. 핵 이동을 통한 국면확대 적용에 있어서의 문제점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SpecCP를 거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동이 허용되는 이유는 SpecCP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나 환경이 발생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SpecCP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나 환경은 어떤 것이 있을까? 우리가 생각해볼 수 있는 한 가지 상황은 CP가 어떤 이유로 인해 자신의 국면성(phasehood)을 상실하는 것이다. 그동안 최소주의의 이론적 틀 내에서 국면성의 상실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있어왔다. den Dikken(2006; 2007), Gallego(2006b), Gallego and Uriagereka(2007) 등이 국면의 개념은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아래는 den Dikken이 제시한 국면확대(Phase Extension)의 정의다.¹¹⁾

(S')여서 이러한 이동은 하나의 한계절점 만을 건너뛰는 것이고 그 결과 하위인접조건 위반이 아니라고 설명한다.

- (i) Tuo fratello, **a cui**, mi domando [CP **che storie**_i [IP abbiamo raccontato **t_i**]]
 your brother, to whom myself ask-1sg which stories have-3PL told
 'Your brother, to whom I wonder which stories they told'.
 (Rizzi 1982, 50)

11) 명제적 특징을 지닌 CP, *μP*만을 국면으로 보는 Chomsky와 달리 den Dikken(2007)은 주어-술어 구조(subject-predicate structure)만을 선천적인 국면(inherent phase)으로 간주한다.

- (i) Inherent Phase

An inherent phase is a predication(subject-predicate structure).
 그리고 다른 절점들은 선천적인 국면(*μP*)의 핵 *v*가 상위 절점의 핵으로 이동하여 국면이 확대됨으로써 국면성을 물려받아 국면이(inherited phase) 된다고 주장한다.

(32) Phase Extension(den Dikken 2007, 1)

Syntactic movement of the head H of a phase α up to the head X of the node β dominating α extends the phase up from α to β : α loses its phasehood in the process, and any constituent on the edge of α ends up in the domain phase β as a result of Phase Extension.

국면 μ P의 사례를 통해 위 정의를 설명하자면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국면 μ P의 핵($[v+V]$)이 국면 μ P를 관할(dominate)하는 최대투사 XP의 핵(X)으로 이동하게 되면 국면은 XP로 확대되고 그 결과 μ P의 보어(VP) 내부에 있던 요소(OBJECT)는 μ P의 가장자리(외곽 지정어)를 거치지 않고 단번에 XP의 지정어로 이동할 수 있게 된다.

(33) a. $[XP X+[v+V]_i]_{[\mu P [DP SUBJECT] [t_j [VP t_i [DP OBJECT]]]]}$ (PH= phase)

PH <----- (PH)

b. $[XP [DP OBJECT]_k X+[v+V]_i]_{[\mu P [DP SUBJECT] [t_j [VP t_i t_k]]]}$

PH

본고에서 다루는 예에서 최하위 CP의 국면성이 상위의 최대투사(VP)로 확대될 수 있다면 CP는 더 이상 국면이 아니므로 주절로 이동해야 하는 요소가 최하위 CP의 지정어를 거치지 않고 이동하는 것을 합리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을 듯하다.¹²⁾

12) den Dikken 주장대로라면 본고에서 다루는 예문의 내포절 CP는 주어-술어 구조가 아니므로 선천적인 국면이 될 수 없고 국면확대를 통한 국면(inherited phase)도 될 수 없다. 왜냐하면 내포절 CP에서는 선천적 국면인 μ P의 핵 v가 T까지만 이동하고 C까지는 이동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i) V $[CP que [TP v+T [v_P t_r [VP ...]]]]$

PH <----- (PH)

den Dikken 주장이 옳다면 본고에서 다루는 두 사례에서 최하위 CP는 국면이 될 수 없고 그 결과 원거리 이동을 하는 의문사가 CP의 지정어를 들러서 이동하지 않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 이유가 쉽게 설명될 수 있을 듯하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의문사가 이동을 시작하는 절과 주절 사이에 여러 개의 절이 존재하는 경우에 중간 절 모두에서 v to T까지만 이동이 있고 T to C 이동은 없으므로 최하위 CP와 마찬가지로 중간의 CP들 역시 국면확대를 통한 국면이 될 수 없다. 그렇다면 주절 CP를 제

그러나 문제는 이와 같은 국면확대는 핵 이동을 전제로 한다는 점이다. 이것을 감안한다면 본고에서 다루는 두 사례에 국면확대에 입각한 분석을 적용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왜냐하면 이들 예문에서 국면 CP의 핵(que)이 CP를 관찰하는 최대투사 VP의 핵으로 이동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3a) *Mis padres parece que son muy listos.*

↑ ___x___ |
 no movement

(27a) *¿Con quién creías tú que quería Juan que María hablara?*

↑ ___x___ |
 no movemen

스페인어에서 핵 이동의 결과가 형태적으로 나타나는 대표적 사례는 전치사와 정관사의 축약 현상이다. 즉, ‘de + el > del’과 ‘a + el > al’은 정관사가 전치사로 이동한 결과로 보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cf. Law 2006).¹³⁾ 그런데 (3), (27)의 경우는 내포절 CP의 핵 que가 상위절의 동사로 핵 이동했다고 볼만한 형태적 근거가 없다. 왜냐하면 아래에서 보듯이 동사와 보어절은 서로 분리될 수 있다. 만약 보문소 que가 상위절의 동사로 이동했다면 둘 사이에 부사가 출현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거나 동사와 보어절이 서로 분리될 수 없어야 할 것이다.

(34) *Dijo claramente que estaba satisfecho.*

외한 나머지 CP들은 모두 국면이 아닌 셈이고 그 결과 원거리 이동을 하는 의문사는 위절에서부터 주절까지 곧바로 이동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예측된다. 만약 곧바로 이동했다면 중간에 있는 모든 CP 내부에서는 주어-동사 도치가 없어야 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앞서 (28)-(29)에서 의문사의 원거리 이동이 일어날 때 최하위 절에서만 주어-동사의 도치가 수의적이고 나머지 중간 절에서는 주어-동사의 도치가 의무적인 것을 보았다. 이 사실은 의문사가 중간 CP의 지정어를 모두 들러서 주절로 이동한다는 증거이므로 den Dikken의 주장을 수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본다.

13) 스페인어는 전치사 좌초를 허용하지 않는데 그 이유를 국면확대로 설명하는 방법이 있다(cf. Kim 2009). 국면 DP의 핵 D가 P로 핵 이동함으로써 PP가 국면성을 물려받아 국면이 되고 그 결과 DP는 국면인 PP 밖으로 이동할 수 없게 된다. 전치사 좌초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기인한다고 설명할 수 있다.

- (35) a. Me preocupa [que mi hijo no estudie duro].
 b. [Que mi hijo no estudie duro] me preocupa.

따라서 필자는 본고에서 다루는 두 사례에서 국면 CP의 핵 que는 상위절 동사로 핵 이동을 하지 않으며 그 결과 핵 이동 방식을 통한 국면확대는 없다고 결론짓기로 한다.

2. 의미적 선택을 통한 국면확대

핵 이동을 통한 국면확대가 가능하지 않다면 CP의 국면성 확대를 가능하게 하는 대안을 찾을 수밖에 없다. 흥미롭게도 Kim(2009)은 핵 이동뿐만 아니라 다른 방식에 의한 국면확대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아래 (36b)는 내포절의 주어 ‘영희’가 주절의 목적어 위치로 이동한 경우이다.¹⁴⁾

- (36) a. 철수는 _{CP} 영희가 영리하다고 믿는다.
 b. 철수는 영희를_i _{CP} 영리하다고 믿는다.
 (Kim, 2009, 315)

그런데 내포절의 주어가 주절의 목적어 위치로 이동하는 것은 A-이동이기 때문에 SpecCP를 거쳐서 이동할 수 없다. 왜냐하면 SpecCP는 A'-이동을 하는 요소가 차지할 수 있는 위치기 때문이다. 만약 SpecCP를 거쳐서 이동한다 하더라도 이는 $A \rightarrow A' \rightarrow A$ 이동이므로 부적절이동(improper movement)이 초래되게 된다. 하지만 (36b)에서 내포절 주어가 주절로 이동하는 것은 국면 밖으로의 이동이므로 SpecCP를 거치지 않는 이동은 PIC를 위반하는 문제에 부딪치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키 위해 Kim은 국면확대는 핵 이동 이외에도 상위절의 동사가 CP를 의미적으로 선택하더라도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한다.

14) 일본어도 한국어와 동일한 현상이 존재한다. 일본어에 대한 논의는 Ogawa(2007)를 참조하기 바란다.

를 수용하도록 하겠다. 두 PIC를 구분하기 위해 편의상 PIC(2000)를 PIC_{STRONG}으로, PIC(2001)를 PIC_{WEAK}로 부르도록 하겠다.

이제 본고에서 다루는 두 사례에 대한 분석을 제시해 보기로 하자. 먼저 국면 밖으로의 A-이동부터 설명해보자. (3)에서 DP가 내포절 밖으로 이동하는 과정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출이 내포절 CP에 도달했을 때의 표시는 아래와 같다.

(3a) *Mis padres parece que son muy listos.*

(42) a. [CP que [TP *mis padres*, son [_{TP} t_i t_{v+V} [_{VP} t_v muy listos]]]]

PH

앞장에서 말한 것처럼 DP(*mis padres*)는 A-이동을 하기 때문에 국면 CP의 지정어로 이동할 수는 없다. 따라서 국면 핵 C의 보어인 TP 내부에 머물러 있지만 PIC_{WEAK}에 따르면 그 다음 국면인 *v*P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TP가 접합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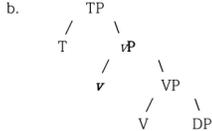
YP의 내부로 탐색이 가능하다.

(ii) [_{ZP} Z [_{XP} X [_{HP} α [_{H'} H [_{YP}]]]]]

PH PH Transfer

구체적인 예를 보기로 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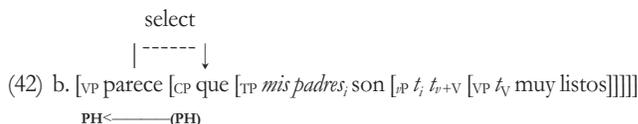
(iii) (iii)a. Llegaron los niño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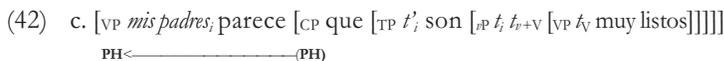
VP 내부의 DP(*los niños*)는 비대격 동사(*llegaron*)의 목적어로 V와 병합한다. 비대격 동사는 목적어 DP의 격 자질을 점검해줄 수 없다. 따라서 목적어 DP는 T에 의해 격자질 점검을 받고 주격으로 실현된다(*llegaron ellos*). PIC(2000)에 따르면 국면 *v*P가 완성되는 즉시 보어인 VP는 문자화되므로 VP 내의 DP(*los niños*)가 T와 AGREE 관계에 들어갈 수 없게 되고 따라서 DP는 자신이 지닌 격자질을 제거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에 부딪힌다. 반면에 PIC(2001)에서는 국면 *v*P보다 상위의 국면 CP에 이르기 전까지는 VP가 문자화 되지 않으므로 DP가 (C로부터 AGREE 자질을 물려받은) T와 AGREE 관계를 이룰 수 있어서 격자질을 제거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PIC(2001)가 PIC(2000) 보다 설명력이 더 낫다고 볼 수 있다.

으로 전이되지 않아 DP가 TP 내에서 머물러 있더라도 외부에서부터 DP로 접근이 가능하다.

둘째, 아래에서 보듯이 국면 CP와 V가 병합하게 되면 V에 의한 CP의 선택을 통해 CP의 국면이 CP에서 VP로 확대되게 된다.



셋째, 국면확대의 결과 CP는 국면성을 상실하여 더 이상 국면이 아니므로 DP가 SpecCP를 들르지 않고 CP 밖으로 이동하더라도 이는 PIC 위반이 아니다.



이번에는 국면 밖으로의 A'-이동에 대한 분석을 제시해 보기로 하자. (27a,b,c)에서 의문사가 최하위 국면 밖으로의 이동하는 과정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 (27) a. ¿Con quiéni creías *tú* que quería Juan que **María hablara** *t_i*?
 - b. ¿Qué libroi dice que **Ana le había regalado** *t_i*?
 - c. ¿En qué *vía*, dijo Juan que anunció el altavoz que **el tren se estacionaría** *t_i*?
- (Torrego 1984, 113)

첫째, 도출이 최하위절 CP 단계에 도달했을 때의 표시는 아래와 같다. 이때 국면 핵 que에는 의문사의 이동을 유인하는 가장자리 자질(Edge Feature)이 부여되지 않았다고 보면 의문사는 SpecCP로 유인되지 않고 *NP*의 외곽 지정어에 그대로 머물러 있게 된다.¹⁷⁾ 그럼에도 불구하고 PICWEAK에 따르면 그 다음

17) Chomsky(2000)는 국면핵인 C(예: that)에 가장자리 자질(Edge Feature=EPP)이 부

국면 *nP*에 도달하기까지는 TP가 접합면으로 전이되지 않기 때문에 의문사가 SpecCP로 이동하지 않았음에도 통사적 과정에 계속 참여할 기회가 남아있다.

(43) a. [CP que [TP María_i hablara [_{nP} **con quién**_j [_{nP} *t_i* *t_{n+V}* [_{VP} *t_V* *t_j*]]]]]]
 PH

둘째, 아래에서 보듯이 최하위 국면 CP와 상위절의 V가 병합하여 V가 CP를 선택하게 되면 CP는 국면성을 상실하고 대신 국면이 VP로 확대되게 된다. 그 결과 의문사(*con quién*)가 SpecCP를 거치지 않고 상위절로 이동할 수 있게 된다.

select
 |-----↓
 (43) b. [_{VP} quería [CP que [TP María_i hablara [_{nP} **con quién**_j [_{nP} *t_i* *t_{n+V}* [_{VP} *t_V* *t_j*]]]]]]]
 PH<----- (PH)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의문사가 SpecVP로 이동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이다. 왜냐하면 SpecVP는 A-위치여서 A'-이동을 하는 요소가 착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자는 CP에서 VP로 국면이 확대됨으로 인해 그 부수적 결과로 SpecVP는 SpecCP가 지니고 있던 A'-위치의 특

여될 수는 있지만 반드시 부여될 필요는 없다고 말한다. 만약, 국면핵 C에 대한 EF의 부여가 의무적이라면 다음과 같이 의문사 이동이 없는 예문은 que에 부여된 EF가 제거될 방법이 없으므로 비문으로 잘못 예측되게 된다.

(i) Juan cree [_{CP} que María quiere a David]
 [EF]

따라서 내포절 C에 대한 EF 부여는 의문사가 연쇄 순환 방식을 통해 원거리 이동을 하는 경우에만 국한된 것이라고 봐야할 것이다. 즉, 내포절 C에 대한 EF 부여는 수의 적이라고 봐야할 것이다. 한편, 본고에서 다루는 예문의 최하위절에서 주어-동사 도치는 수의적이다. 주어-동사 도치가 발생한 경우는 국면 핵 que에 EF가 부여된 경우이다. 즉, 국면의 핵 C(que)에 EF가 부여되고 (상위동사에 의한 의미적 선택의 결과로 국면이 확대되는 것과 상관없이) C와 TP가 병합하게 되면 C에 부여된 EF는 제거되기 위해 SpecCP로 의문사를 유인하게 되고 그 결과 주어-동사의 도치가 발생한다. 만약 의문사가 이 위치로 이동하지 않으면 EF가 제거되지 못해 도출이 파탄에 이르기 때문이다.

성도 물려받아 그 결과 SpecVP는 A-위치 특성과 A'-위치의 특성을 모두 가지게 된다고 보자.¹⁸⁾ 즉, 국면확대로 인해 A-위치와 A'-위치의 구분이 사라지게 된다고 보자. 그 결과 SpecVP는 A-이동을 하는 요소뿐만 아니라 A'-이동을 하는 요소도 모두 차지할 수 있다고 보자.¹⁹⁾ 이처럼 CP에서 VP로의 국면확대와 그에 따른 부수적 효과인 SpecVP의 A/A'-위치 구분 상실 덕분에 의문사는 최하위절 *v*P의 외곽지정어에서부터 상위절의 SpecVP로 곧바로 이동할 수 있게 된다.²⁰⁾

(43) c. [_{VP} *con quién*_i quería [_{CP} que [_{TP} María hablara [_{IP} *t*'_j [_{IP} *t*_j *t*_{v+V} [_{VP} *t*_v *t*_j]]]]]]]
 PH <----- (PH)

- 18) Ogawa(2007)는 일본어에서 내포절 주어가 CP를 넘어서 주절의 목적어 위치로 이동하는 현상(Subject Raising phenomenon)을 설명하면서 이 구문의 도출과정에서 내포절의 C는 주절의 V로 포함(incorporated)되는데 이 포함의 결과 주절의 어휘범주 V(즉, V+C)는 기능범주와 더 이상 구분되지 않게 되고(non-distinct) 이로 인해 V+C는 EPP 자질을 가질 수 있게 되어 명사구를 유인한다고 주장한다. 의미적 선택이 일어나면 국면이 CP에서 상위절 VP로 확대되고 국면확대의 부수적 결과로서 VP의 지정어는 CP의 지정어가 지니고 있던 A'-위치 특성까지도 물려받게 되어 A와 A' 위치적 특성을 모두 갖추게 된다는 본고의 주장은 Ogawa의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하겠다.
- 19) 다음의 가능성도 고려해볼 수 있을 듯하다. 자질계승(Chomsky 2008)에 의해 *v*가 V에 자질을 물려줄 때 만약 AGREE 자질 뿐만 아니라 가장자리(EDGE) 자질까지도 물려줄 수 있다면 이 가장자리 자질이 의문사의 이동을 SpecVP로 자연스럽게 유인할 수 있을 것이다.
- 20) 익명의 논평자께서 상위절 동사에 의한 의미적 선택이 국면확대를 유발한다면 원거리 의문사 이동이 일어날 때 최하위절 뿐만 아니라 나머지 모든 CP 보어절도 국면에서 해방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이는 타당한 의견이라 생각된다. 필자 역시 이점을 인지하고 있었기에 의미적 선택에 의한 국면확대는 최하위 절에만 국한된다고 말할 수밖에 없을 듯하다. Torrego(1984)가 이 예문이 하위인접조건을 위반하는 문제를 한계절점의 매개변인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제안했을 때 Torrego 역시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해결안이 최하위절에만 국한되는 “한계”를 알고 있었으리라 본다. 추후 이 문제에 대해 좀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다. 아무튼 논평자의 좋은 의견에 감사드린다.

V. 결론

지배-결속 이론에서는 장벽(barrier)의 개념을 통해 이동을 제어하였고 Chomsky(2000) 이후의 최소주의에서는 PIC를 통해 이동을 제어해오고 있다. PIC는 어떤 요소가 국면(CP, μ P) 밖으로 이동할 경우 반드시 국면 핵의 가장자리(edge)를 들어서 이동할 것을 요구한다. 그런데 본고에서는 Fernández-Salgueiro(2008; 2011a; b)에서 제시된 원거리 A-이동 사례와 Torrego(1984)에서 제시된 원거리 A'-이동 사례는 국면 CP의 가장자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상위절로 이동한 것이어서 이는 PIC 위반이라는 것을 지적하였다.

이처럼 SpecCP를 거치지 않고서도 국면 CP 밖으로의 이동이 가능한 사례가 있다는 사실은 PIC가 원거리 이동 현상을 모두 다 제어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고에서는 PIC의 틀 내에서 이러한 원거리 이동 현상을 설명하는 방안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본고에서는 국면확대(Phase Extension)는 핵 이동뿐만 아니라 상위절 동사가 보어절을 의미적으로 선택하더라도 발생할 수 있다는 Kim(2009)의 주장과 PICWEAK(Chomsky 2001)를 조합하면 이들 예문에서 SpecCP를 거치지 않는 이동이 가능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주장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상위절의 V가 CP를 선택함으로써 CP에서 VP로 국면확대가 발생하면 CP는 국면성을 상실하게 되고 그 결과 CP 밖으로 이동하는 요소는 SpecCP를 들어서 갈 필요가 없어지게 된다. 따라서 SpecCP를 거치지 않고 곧장 이동하더라도 이는 PIC 위반이 아니다. 그리고 VP의 지정어는 원래 A-위치이지만 CP로부터 국면성을 물려받게 될 때 SpecCP가 지니고 있던 A'-위치적 특성도 물려받게 된다고 가정한다면 VP의 지정어로 A-이동을 하는 요소뿐만 아니라 A'-이동을 하는 요소도 이동할 수 있게 된다.

참고문헌

Adger, David(2003), *Core Syntax*, NY: Oxford University Press.

- Somerville, MA: Cascadilla Proceedings Project, pp. 43-55.
- _____ (2006b), "Phase Sliding", Ms., UAB & UMD.
- Gallego, Ángel & Juan Uriagereka(2007), "Sub-Extraction from Subjects: A Phase Theory Account", Ms., UAB & UMD.
- Holmlander, Disa(2004), "Constructions with the Raising Verb *Parecer* in Spanish", *C-level Essay in General Linguistics*, Lund University.
- Hornstein, Norbert et al.(2005), *Understanding Minimalism*,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anno, Satoru and Tadao Nomura(2011), "Syntactic Finiteness of Subjunctive Clauses", paper presented at Hokaido Linguistic Society.
- Kim, Dong-Seok(2008), "On Phase Extension", *The New Association of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Vol. 39, pp. 183-202.
- Kim, Sun-Woong(2009), "V-C Dependency, Phase Extension, and Raising to Object", *Generative Studies*, Vol. 19, No. 3, pp. 313-331.
- Law, Paul(2006), "Preposition Stranding", Martin Everaert and Henk van Riemsdijk(eds.), *The Blackwell Companion to Syntax*, Oxford: Blackwell, pp. 631-684.
- McCloskey, James(2000), "Quantifier Float and Wh-Movement in an Irish English", *Linguistic Inquiry*, Vol. 31, No. 1, pp. 57-84.
- Ogawa, Yoshiki(2007), "C-to-V Incorporation and Subject Raising across CP Boundary", *English Linguistics*, Vol. 24, No. 1, pp. 33-66.
- Olarrea, Antxon(1998), "On the Position of Subjects in Spanish", *Anuario del Seminario de Filología Vasca "Julio de Urquijo"*, Vol. 32, No. 1, pp. 47-108.
- Pyun, Il-Bum(2008), "Phase, Spell-Out and Syntactic Derivations", *The Jungang Journal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Vol. 50, No. 4, pp. 289-309.
- Quan, Feng and Jinhee Suh(2014), "A Phase Inheritance-based Account on A'-extraction of Double Object Constructions", *Korean Journal of Linguistics*, Vol. 39, No. 1, pp. 181-204.
- Radford, Andrew(2001), "Probing Derivation by Phase", Ms., Essex: University of Essex.
- Rizzi, Luigi(1982), "Violations of the Wh-island Constraints and the Subjacency Condition", *Issues in Italian Syntax*, Dordrecht: Foris Publication, pp. 49-78.
- Sakamoto, Akihiko(2012), "Feature Inheritance and Vacuous Movement", *English Linguistic Society of Japan*, Vol. 29, No. 2, pp. 316-343.

Sohn, Gwangrak(2015), “Locality and Phase Impenetrability Condition in Scrambling Condition in Scrambling”, *Studies in Linguistics*, Vol. 37, pp. 137-158.

Suñer, Margarita(1978), “Perception Verb Complements in Spanish: Same or Different?”, *Canadian Journal of Linguistics*, Vol. 23, pp. 107-127.

_____ (1982), “Big PRO and Little pro”, Ms. Cornell University.

_____ (1984), “Controlled pro”, *Papers from the XIIth Linguistic Symposium on Romance Languages*, Philip Baldi(ed.), Amsterdam: John Benjamin Publishing Company.

Torrego, Esther(1984), “On Inversion in Spanish and Some of its Effects”, *Linguistic Inquiry*, Vol. 15, No. 1, pp. 103-129.

_____ (1996), “Experiencers and Raising Verbs”, R. Freidin(ed.), *Current Issues in Comparative Grammar*, Dordrecht: Kluwer, pp. 101-120.

_____ (2002), “Arguments for a Derivational Approach to Syntactic Relations Based on Clitics”, S. Epstein & T. Seely(eds.), *Derivation and Explanation in the Minimalist Program*, Malden(Mass.): Blackwell, pp. 249-268.

심 상 완

단국대학교
pablo@dankook.ac.kr

논문투고일: 2017년 2월 27일
심사완료일: 2017년 4월 12일
게재확정일: 2017년 4월 13일

A Minimalist Analysis of Two Cases of the PIC Violation in Spanish

Sang-Wan Shim

Dankook University

Shim, Sang-Wan(2017), "A minimalist Analysis of Two Cases of the PIC Violation in Spanish", *Revista Asiática de Estudios Iberoamericanos*, 28(1), 87-115.

Abstract This paper provides a minimalist analysis of two cases of long-distance movement in Spanish. The PIC forces successive-cyclic movement via phase edges. That is, movement out of a phase(CP, νP) must proceed through the edge of a phase(Spec,CP, Spec νP). In Spanish, however, there exist two cases in which the element undergoing movement out of CP does not pass through SpecCP. One example was provided by Fernández-Salgueiro(2008; 2011a; b) and the other one was provided by Torrego(1984). Thus, we try to look for a way of accounting for why this movement is allowed in spite of appearing to violate the PIC. For this we adopt Kim Sun-Woong(2009)'s claim that phase extension can take place either via syntactic movement or via semantic selection. According to his claim, when V selects CP, phase extension takes place from CP to VP and as a consequence CP comes to lose its phasehood. We claim that phase extension via semantic selection makes it possible for the element undergoing long-distance movement to skip SpecCP without yielding a PIC violation. This is the reason why the long-distance movement skipping SpecCP is allowed in the two examples.

Key words Long-distance movement, Phase, Phase Impenetrability Condition, Semantic Selection, Phase Extension